

대한민국 성장동력, 한양대학교  
*The Engine of Korea*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TEL : 02-2220-0830 FAX : 02-2281-4554  
<http://hypo.hanyang.ac.kr/>



The Diamond of Liberal Arts  
**HYU, Policy**

문과의 다이아몬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한양’의 이름 안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여 온 ‘한양’의 놀라운 승리, 그 승리와 영광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분투해 온 한양인의 땀과 노력이 배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 한양대학교

따뜻한 사랑의 실천으로 묵묵히 세상의 내일을 바꾸는 한양인의 지칠 줄 모르는  
용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 CONTENTS

- MESSAGE / 03
- Introduction / 04
- 한양인의 놀라운 힘 / 07
- 사회를 리드하는 한양법대 맨파워 / 08
- 문과의 다이아몬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 09

### Step 1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 최고 1% 인재를 집단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 1-1 입시기관에서 본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위상 / 12
- 1-2 2013년도 입시 결과에 나타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성적 / 13
- 1-3 다이아몬드 장학금 - 4년간 전액 장학금 지급 / 13

### Step 2 다이아몬드를 갖고 닦아라

- 1% 인재를 0.1% 인재로 키운다
- 2-1 입증된 교육효과, PPEL(Politics, Philosophy, Economics and Law) 교육 과정 / 14
- 2-2 사회 리더인 동문들의 열렬한 지원 / 15
- 2-3 미래 비전의 학생 자치 활동 / 16
  - (1) 끊이지 않는 관심, 멘토결연식
  - (2)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명사 강연
  - (3) 서울지역 명문대간 연합학술제 UPPS
  - (4) 지적재산권법학회
- 2-4 GLOBAL HYU, Policy / 19
  - (1) ALSA(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아시아법학생연합)
  - (2) 교환학생, 세계 명문대학에서 실력 쏙다
  - (3) 넓은 세상에서 나를 키운다(해외 봉사활동)

### Step 3 세상의 다이아몬드로 찬란히 빛나라

- 무한한 가능성으로 세상을 리드한다
- 3-1 실력으로 입증하다 - PSAT 합격자 / 21
- 3-2 법조인으로 우뚝서다 - 로스쿨 입학 / 21
- 3-3 세계에 도전한다 - 꿈을 마음껏 펼쳐라 / 22

## MESSAGE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온 한양대학교는 매년 ‘사랑의 실천’ 정신을 갖춘 인재를 우리 사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는 50년 전통의 한양법대를 계승하여 법조인, 행정관료 등 국정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은 정책학과는 설립 이래 한양대학교 내 다른 학과들뿐만 아니라, 타 명문대학 동종학과와 비교해도 두드러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매년 내오고 있습니다. 정책학과의 교육목표는 상위 1%내의 학생들을 인문사회계열 최고의 엘리트로 완성하여 0.1%의 인재로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정책학과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실용학풍의 계승’이라는 한양의 기치 아래 인문사회계 대표적 실용학문인 법학, 경제학, 행정·정치학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교육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최고 엘리트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양대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정책학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정책학과의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한양대학교 총장 임 덕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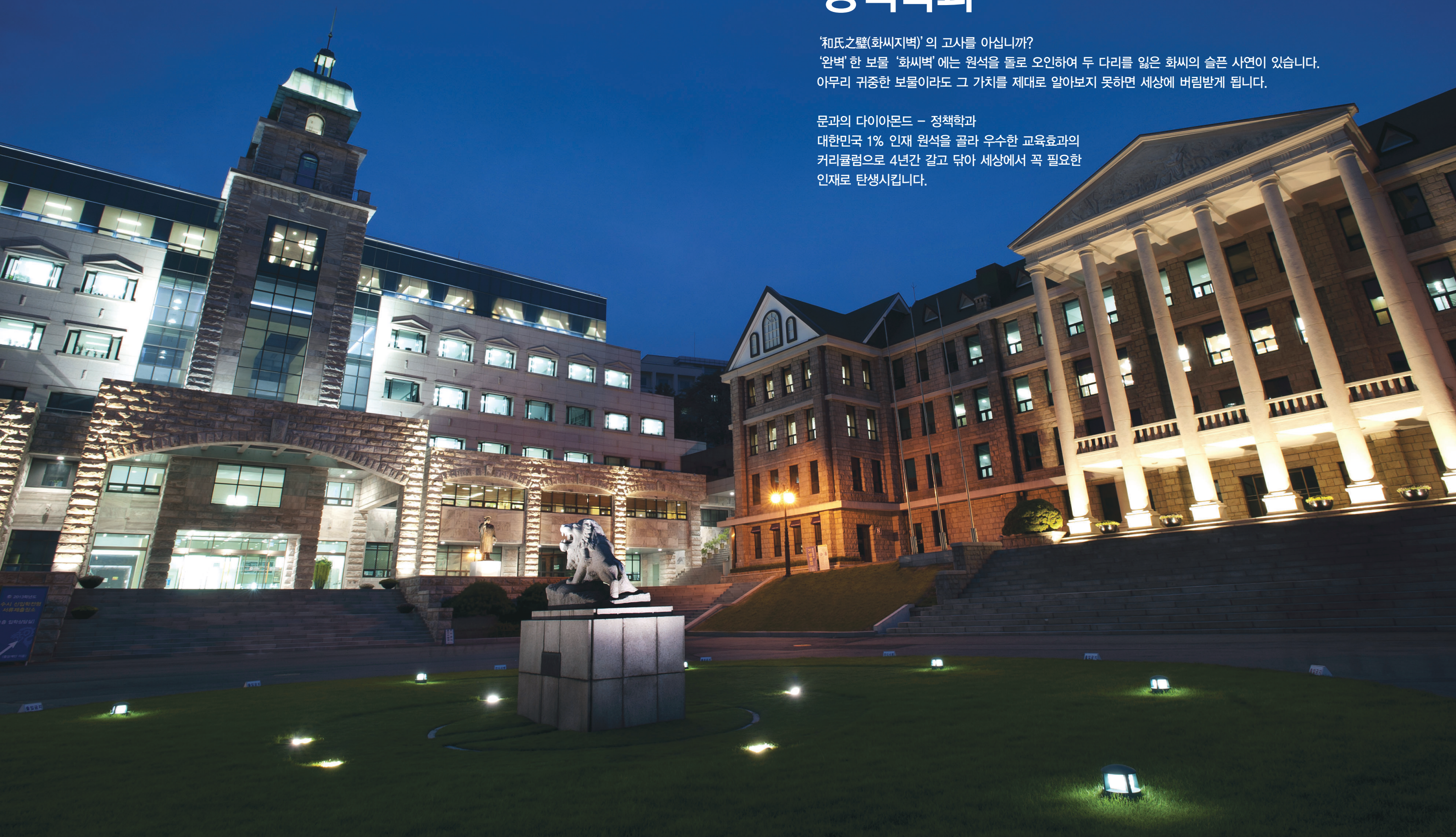
# 문과의 다이아몬드 정책학과

‘和氏之璧(화씨지벽)’의 고사를 아십니까?

‘完璧’ 한 보물 ‘화씨벽’에는 원석을 돌로 오인하여 두 다리를 잃은 화씨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에 버림받게 됩니다.

문과의 다이아몬드 – 정책학과

대한민국 1% 인재 원석을 골라 우수한 교육효과의  
커리큘럼으로 4년간 갈고 닦아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탄생시킵니다.





# Power of HYU

## 한양의 도전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누적 법조인 4위

누적 행정고시 합격자 6위

4대 그룹 주요계열사 임원 3위

1000대 기업 CEO 4위

슈퍼 벤처 CEO 2위

언론인 5위

기술 이전 수입 1위

한양의 심장이 뛰는 한  
대한민국은 더 커집니다.

## 한양인의 놀라운 힘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는 한양인들.  
한양대학교는 대기업 임원 배출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재 양성소로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2011년 6월 22일

###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 출신 대학 살펴 보니..... 서울대 · 고려대 이어 한양대

4대 그룹 주요 계열사 전무 이하 임원들의 최종학력은 학사가 1184명으로 다수를 이뤘다. 이어 석사 503명, 박사 166명이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고졸도 13명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회사에 들어온 이 후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어 임사 기준으로 볼 때 고졸 임원은 더 많을 것”이라며 “능력 위주의 인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석·박사 비율이 낮은 그룹으로 는 현대차가 꼽혔다. 현대차의 경우 학사 출신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졸업학교가 밝혀진 1921명 중 서울대가 281명으로 압도적이었 다. 그 뒤는 고려대(183명), 한양대(147명), 연세대(141명), 성균관대(119명), 경북 대(94명), 부산대(91명), 인하대(72명), 한국과학기술원(71명), 영남대(6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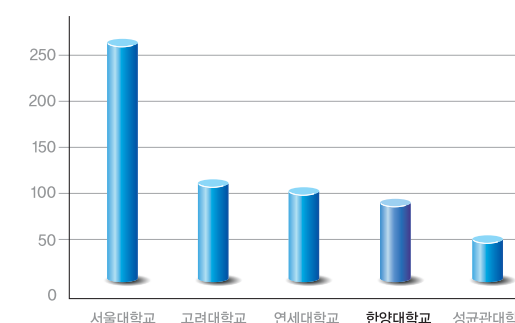
세계일보 2013년 5월 5일

### 정몽구 · 구자준 · 윤부근씨 등 모두 동문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으로 인재 양성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자준 LG손해보험 회장, 윤부근 삼성 전자 사장의 공통점은?

모두 한양대학교 출신 경영인이라는 점이다. 한양대는 국내 대학 중 10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4번째로 많이 배출한 학교이다. 이공계 CEO로만 봤을 때는 국립 · 사립대 중 1위다. 위에 언급 한 세 경영인도 모두 공대를 나왔다. 윤지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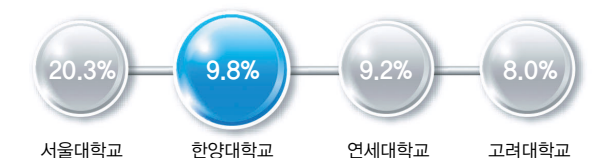
### 1000대 상장사 CEO 출신 대학 4위



이공계 CEO 최다 배출대... 'SKY 아니다', 어디?  
한양대 기계공학과 출신이 가장 많아...

1000대 기업의 경우 단과대학에서는 한양대 독보적 1위

2012년 코스닥 상장법인 CEO 출신 대학 2위





## 사회를 리드하는 한양법대 맨파워 – 이제 정책학과의 다이아몬드 인재들이 그 맥을 이어갑니다.

재계, 법조계를 가리지 않고 사회 어느 부문에서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한양대학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Power of HYU입니다. 한양의 파워 엘리트 집단, 한양법대. 그 명성만큼 우리사회의 뛰어난 인재 산실입니다.

로스쿨별 예비검사 및 로클릭  
합격자 현황

순위	로스쿨	합계	예비검사	로클릭
1	연세대	14	7	7
2	한양대	12	4	8
	서울대	11	8	3
3	성균관대	11	5	6
	충남대	11	5	6
6	고려대	9	3	6
7	부산대	7	2	5
8	경북대	6	1	5
	전남대	6	0	6
10	경희대	5	3	2
	영남대	5	0	5
	건국대	4	0	4
	인하대	4	0	4
12	중앙대	4	1	3
	강원대	4	1	3
	서울시립대	4	1	3
	아주대	4	1	3
	전북대	4	1	3
19	제주대	3	0	3
	충북대	3	0	3
21	원광대	2	0	2
	한국외대	2	0	2
23	동아대	1	0	1

※이화여대, 서강대는 로클릭 합격자수 미확인으로 제외

올해 사법고시 합격자 현황...  
SKY 강세 속 한양대 선전

...2012년 대학별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한양대는 4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서울대, 연·고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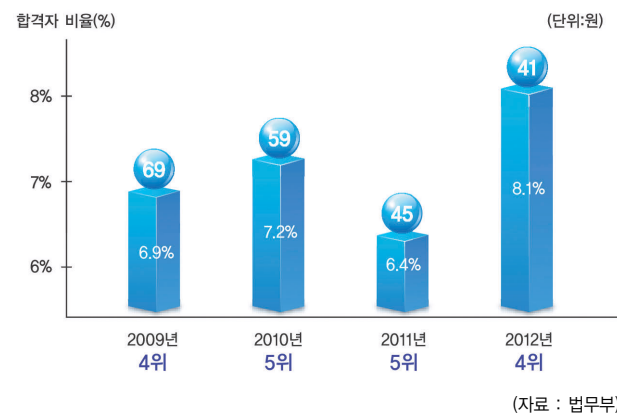
연세대 14명 1위

한양대 12명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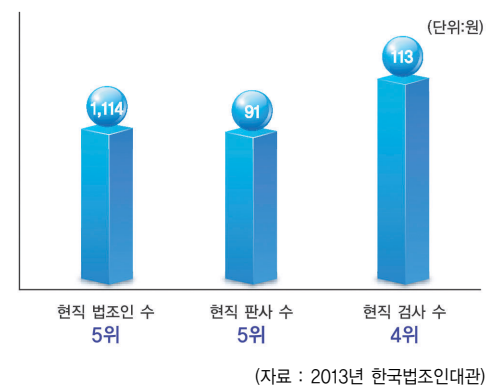
충남대 11명으로 두각...

서울대·성대와 공동 3위

최근 4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



한양의 법조인 수



## 2009년 신설된 정책학과는 한양법대의 명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양대학교는 법과대학을 로스쿨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 법조인 배출 4위를 자랑하는 법과대학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대학교는 법과대학의 명성을 이어감과 동시에 '융·복합적 엘리트 양성'을 모토로 2009년 정책학과를 전략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비록 올해로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책학과는 한양대 최고의 학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이미 입증된 우수한 커리큘럼 하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여 국가 인재,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 문과의 다이아몬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정책학과는 실용학문의 융·복합적 교육을 통해 실용 인재 및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한양대학교의 다이아몬드에서 나아가 21세기 창조형 인재 다이아몬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 실용학문의 兩大山脈, 법과 경제를 모두 섭렵하는 실용 인재 양성

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현대인들의 경제 활동 또한 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은 경제특구 지정 혹은 신흥 산업 육성 등에 관해 규정하여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근로기준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과 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 정책 결정 능력을 갖춘 오피니언 리더 양성

복명복창에 능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인재」는 적습니다. 정책학과에서는 법학, 경제학과 더불어 정치학을 교육함으로써 조직 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세상과 미래를 리드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재로 갈고 닦아라

뛰어난 조련사를 만나야 명마가 되듯이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세공사의 갈고 닦음이 없으면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탄생되지 않습니다.

‘伯樂—顧(백락일고)’

백락이 말을 한번 돌려보자 말값이 10배나 폭등했다는 고사처럼  
아무리 특출한 인재도 효과적인 배움과 가르침이 없으면 둔재로 전락합니다.

문과의 다이아몬드 학과 - 정책학과

대한민국의 1% 인재들을 미래를 창조하는 0.1%의 인재로 키워냅니다.





## STEP 1

##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 – 최고 1% 인재들 집단,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 1-1 입시기관에서 본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위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562											
561	사과								한의대(나)		
560											
559		경제	자전						한의대(가)		
558	경영	경영 심리 언론연 응통				정책(나)					
557					글경(가) 글경(나)						도행(다)
556	농경제 인문		경영 국제 인문 정경 미디어 식자경 역교 컴공			파경(가)					
555			국교	경영 인문	글제(가) 글제(나)	정책(가) 파경(나)					
554				경제 영미 커뮤	글리(가) 글리(나) 경영(나)						
553	사교 소아	국문 문헌 문화 사회 영문 자전 정외 행정	교육 국어 보행 지교			정시팀 (나)					

출처: 메가스터디

위의 2014학년도 수능 배치표에서 정책학과의 입학 점수가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경영학과 · 심리학과 · 언론홍보영상학과 · 응용통계학과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 '13년도 입시결과에 나타난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성적

전 형	계 열	학 과	언수외탐 백분위 평균	누적백분위
정시 (가)군	상경계	경영학부	96.86	1.00
		경제금융학부	96.63	1.15
		파이낸스경영학과	97.38	0.68
	인문계	교육공학과	96.63	1.17
		국어국문학과	96.53	1.21
		사학과	96.48	1.22
		사회과학부	96.46	1.25
		정책학과	97.19	0.78
정시 (나)군	상경계	경영학부	96.98	0.89
		경제금융학부	96.71	1.06
		정보시스템학과(상경)	96.30	1.36
		파이낸스경영학과	97.14	0.84
	인문계	관광학부	96.73	1.07
		사회과학부	96.86	0.99
		영어교육과	96.50	1.18
		정책학과	97.30	0.74

출처: 한양대학교 입학처

※ 언수외탐 백분위 평균: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탐구영역(2개 과목)의 백분위를 영역별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 낸 값  
 ※ 누적백분위 평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체를 100명으로 가정한 뒤 특정 점수의 학생이 100명 중 몇 등에 위치하는지를 산출한 백분위 값.  
 해당 백분위 산출에는 한양대학교 식 반환점수(1000점 만점)가 사용되었으며 영역별 가중치가 반영되어 있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시에서는 한양대 전체 2위, 입시 결과가 가장 높다는 정시 (나)군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책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1-3 다이아몬드 장학금 – 4년간 전액 장학금 지급

입학연도	2009년 (97명)	2010년 (99명)	2011년 (100명)	2012년 (101명)	2013년 (94명)
수혜 비율	68명 (70.1%)	92명 (92.9%)	97명 (97%)	89명 (88.1%)	77명 (81.9%)

## 정책학과는 2013학년도 기준

## 〈수시 모집 장학기준〉

전액 : 언어 + 수리(나) + 외국어 or 사회탐구 **등급합 3**반액 : 언어 + 수리(나) + 외국어 or 사회탐구 **등급합 4**

## 〈정시 모집 장학기준〉

전액 : 언어 + 수리(나) + 외국어 + 사회탐구(2과목 평균) **백분위 합 392 이상**반액 : 언어 + 수리(나) + 외국어 + 사회탐구(2과목 평균) **백분위 합 390 이상**

수학능력시험에서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고 정책학과에 지원한 우수한 학생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는 4년간 전면 장학금 지급 등 장학혜택을 통해 매년 최고 수준의 수험생들을 정책학과로 모집합니다.  
 이후 4년간의 커리큘럼을 거쳐 융 · 복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정책결정자를 양성합니다.



## STEP 2

#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아라 - 1% 인재를 0.1% 인재로 키운다

2-1 입증된 교육효과, PPEL(Politics, Philosophy, Economics and Law) 교육 과정

## Why does PPE rule Britain?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course

By Jon Kelly  
BBC News Magazine



It is the degree of choice for the Westminster elite, claiming six cabinet members and three Labour leadership contenders among its alumni.

Why does Oxford's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course dominate public life?

출처: <http://www.bbc.co.uk/news/magazine-11136511>

정책학과 PPEL 교육과정의 전신이 되는 옥스퍼드 PPE 교육과정은 영국 내에서도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검증된 교육과정에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융·복합적 엘리트 양성'이라는 모토에 보다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 정책학과는 그 우수성을 다방면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Politics & Public Administration

정치학 원론, 정치사상사, 비교정치론,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 행정학 원론, 재무행정, 인사 및 조직행정, 정책학, 조사방법론, 도시 및 지방행정론

### Economics

경제학 원론 I, II, 경제수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재정학, 한국경제론, 경제정책, 정치경제론

### Law

법과 사회, 민사법 I, II, III, IV, 헌법학 I, II, 행정법학 I, II, III, 형사법 I, II, 상사법 I, II

### Politics & Public Administration

논리적 사고,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추리와 문제해결, 심리학과 인지과학  
비판적 사고, 과학기술철학특강, 논증의 해부

정책학과  
커리큘럼

### 〈교내 교육효과 조사〉

순위	학과명
1	국제대학대학원
2	교육공학과
3	정책학과
4	간호학전공
5	관광학부
6	국제학부
7	정치외교학전공
8	경제금융학부
9	사학과
10	법학전문대학원
11	중어중문학과
12	독어독문학과
13	철학과
14	행정학전공
15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16	경영학부·파이낸스경영학과
17	교육학과
18	영어교육과
19	사회학전공
20	국어국문학과
21	영어영문학과
22	국어교육과

출처: 2012 한양대 내부조사  
<http://www.hanyang.ac.kr/user/hanyang2020/index.action>

### 2-2 사회 리더인 동문들의 열렬한 지원

순위	학과명
1	정책학과
2	정치외교학전공
3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5	행정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경제금융학부
8	철학과
9	사학과 경영학부·파이낸스경영학과
11	영어교육과 간호학전공
13	사회학전공 국어교육과
15	국어국문학과 독어독문학과 관광학부
18	국제대학원
19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21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부

출처: 2012 한양대 내부조사  
<http://www.hanyang.ac.kr/user/hanyang2020/index.action>

한양대학교 정책학과는 신설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육효과 면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정책 12, 2학년  
이 다 은

정책학과에서의 수업은 행정고시 1차 시험인 PSAT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책학과는 교과 과정에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논리학 수업을 개설해 두었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 논리학을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학점과 PSAT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과 수업을 바탕으로 바로 PSAT 기출 문제 등을 통해 시험에 대비하였는데, 큰 무리 없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학과의 커리큘럼은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욱 최적화되어있습니다. 행정고시 2차 시험 과목들인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민법 등의 과목들은 실제 정책학과 커리큘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앞으로도 정책학과의 커리큘럼을 저의 진로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고시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문들의 열렬한 관심과 후원은 차세대 리더 양성소인 정책학과에 물려 발전기금 모금도 1위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전 사법연수원장  
손 용 군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는 한양법대의 후신이라고 자임할 만 합니다.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 선배로서 정책학과의 한양법대의 신화를 다시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신화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정책학과의 되어 그 이름을 더욱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학과는 지난 5년간 한양대학교 문과외의 군계일학으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1억 원의 발전기금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새로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학교와 선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정책학과 안에서 꿈을 펼칠 때, 후배 여러분은 학교의 자량이자 사회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책학과 후배들의 아름다운 레이스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 2-3 미래 비전의 학생 자치활동

미래 비전,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학생 자치활동은 정책학과를 더욱 창의적인 인재로 갈고 닦습니다. 우수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정책학과 학생들은 스스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끊이지 않는 관심, 멘토결연식

멘토 결연식은 한양대학교 출신 사회 각계의 고위인사들을 초청하여 정책학과의 학생들과 대담 시간을 가지며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맺는 행사입니다. 단순한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멘토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정책학과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최고의 인재로 성장해 나갑니다.



육동한 국무차장, 황홍규 교육부국장, 김성현 한양법조동문회장 등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시기에 선배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게 되어 더 큰 노력을 불러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4년차의 결연을 이어가고 있고, 5년차를 결연을 기다리고 있는 정책과학대의 멘토 결연식은 더욱 특별합니다.

한양대학교 동문 선배님들로 이루어진 멘토들은 현재 행정부, 사법부, 언론, 기업계의 고위 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9년도에 창설된 정책학과가 타과의 선배들과의 교류와 비교해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것은 활발한 선후배 교류를 대표하는 행사인 멘토 결연식에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갓 입학한 새내기 학생들을 주로 멘티로 하여 멘토와의 결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첫 인연을, 오랜 인연으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멘토 결연식이 시작되면 멘티들마다 5:2의 비율로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음식과 함께 멘토들과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을 묻고, 멘티들은 멘토의 업무와 학창 시절에 대한 궁금증들로 두 눈을 반짝입니다.

바로 작년, 2012년에 이루어진 제 4회 정책과학대 멘토결연식에서는 육동한 국무차장, 김승 한법회 회장, 김승호 행안부 국장, 박희승 부장판사, 이승준 환경부 사무관, 안빈야 사시합격자가 1부인 공식 토크쇼를 장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된 박희승 부장판사님과 박선아 변호사님은 멘티와의 30년 가까운 학번 차이가 무색할 만큼 어색함 없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더불어 하루 한 나절의 저녁 식사에서 만 그칠 수 있었던 인연을 멘토들께서 우리 조의 동기들을 법원에 초대해주시면서 이어, 배석 판사님들로부터 직접 법원과 법정의 이모저모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서부 지방 법원의 그림자 배심 재판에 참여하게끔 해주시면서 형사 재판의 배심원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선후배 교류의 대표 행사로 이어질 멘토 결연식은 멘토들과의 가슴 벅찬 만남과 현장에서의 경험 어린 조언들로 저를 포함한 멘티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합니다.

김 고 은(정책12) (출처)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홈페이지



### (2)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명사 강연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강연



육동한 전 총리실 국무차장 특별강연

정책학과에서는 매년 여러 차례 사회 각 부문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일찍부터 실천적인 사고를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볼 기회를 가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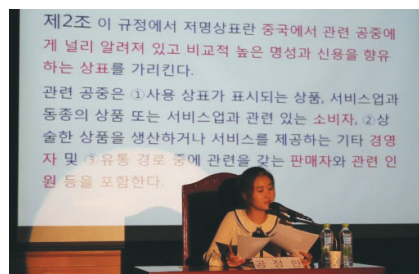


## (3) 서울지역 명문대간 연합학술제 UPPS



UPPS는 United Public Policy Society의 약자로서, 공공 정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한양대 정책학과,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가 연합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정책 학술제입니다. 정책 학술제를 통해 사회의 이슈에 대해 법,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팀원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지적 교류를 통해 사고성을 기르고 인맥을 넓힐 수 있습니다.

## (4) 지적재산권법학회



최근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권 분쟁이나 저작권협회와 소상공인들 간 음반 공연권 갈등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지적재산권은 이에 관련한 논쟁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연관 산업 규모가 상당히 큼니다. 지적재산권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지적재산권법으로, 지적재산권법학회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혹은 논쟁의 원인을 탐구하고 법적인 해결 방안과 개인적 의견에 관하여 토론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4 GLOBAL HYU, Policy

글로벌 리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 이웃나라와 소통하는 언어, 각 나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글로벌 리더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매년 30여 개국 450여 개 세계 우수 대학에 2,000여 명 이상을 보내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와의 보석 인재들도 두려움 없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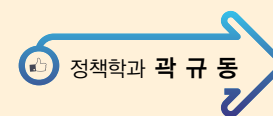
## (1) ALSA(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 아시아법학생연합)



ALSA는 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아시아 법 학생 연합)의 약자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10여 개국의 법학도들로 구성된 국제 동아리입니다. ALSA는 춘·추계 학술제와 같은 국내 활동과 ALSA Forum, ALSA Conference, Study Trip, National Forum 등의 다양한 국외 활동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술활동을 통해 각국의 법에 대해 학습하고 국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 (2) 교환학생, 세계 명문대학에서 실력 쌓다

세계 30여 개국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교에서 수학하여 어학과 전공 학업을 병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생활의 꽃'으로 글로벌 리더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여름에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에서 1달간 INTO Course를 거쳤습니다. 학과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학생들을 해외로 보낸 것은 비단 외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차후에 인문 사회계열의 엘리트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더욱 넓은 시야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어학연수는 커리큘럼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INTO 과정인 4주 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미국인 룸메이트와 한방을 쓰며 OSU의 교수님께 Reading, Speaking, Writing을 수학했습니다. 4주 남짓의 시간이었지만, 아침에 눈을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영어가 익숙해지다 보니 영어의 사용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4주 동안 영어 사용자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많이 뽀뽀해져, 귀국 전 2주의 시간 동안 미국 동, 서부를 여행할 때에도 불편함 없이 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4주간의 어학연수를 마친 뒤 귀국 전 2주간 13명의 동기들과 미국 동, 서부를 여행했습니다. 서부의 캘리포니아주부터 동부의 뉴욕주까지 함께 계획을 짜고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전혀 몰랐던 사실들과 감상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만약 제가 1학년 여름에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편협한 시각을 가진 채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주간의 짧은 여행 동안 20년간 갖고 있던 생각들이 뒤바뀌는 경험을 한 저로서는 이후에도 제 한계를 절감하고 더욱 넓은 시야를 갖고 깊은 사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방면에서의 분석을 통해 입체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함양하는 정책학과와 교육목표와 궤를 같이합니다. 열린 사고를 통해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학우들은 이후에 의사결정권을 갖는 자리에서 그 책임감의 무게를 실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넓은 세상에서 나를 키운다(해외 봉사활동)

한양대학교의 건학정신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봉사과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한양인은 국내외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정책학과 한 아 름



#### 봉사활동으로 간 국가와 정확한 명칭은?

카메룬 공화국  
Republic of Cameroon(영어), République du Cameroun(프랑스어)



#### 봉사활동을 간 이유는?

대학생활의 특권은 수많은 기회들과 긴 방학!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라는 말씀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게 무엇이 있나 생각하니, 바로 봉사활동. 특히나 방학 때만 갈 수 있는데다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봉사할 수 있는 해외 봉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꿈은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던 저 먼 아프리카의 땅, 카메룬으로!

#### 봉사활동을 가서 느낀 점은?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하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의 모습과 드넓은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들을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은 대중매체가 일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만들어낸 산물이지 않나 싶다. 내가 경험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라고 해서 마냥 사막과 같이 더운 곳도 아니었으며 (심지어는 한국보다 선선했다), 어느 곳과 다름없이 희노애락이 있는 삶의 터전이었다.

요즘에는 해외 봉사를 간다고 하면 '스펙 쌓기'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넘쳐 나는데 무엇하러 해외에 나가서 하냐고들 한다. 하지만 나에게 해외 봉사는 스펙 쌓기가 아닌,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갈 하나의 계기가 되어주었고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아무런 기술도 없었을 때 우리 보다 나은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구촌 시대에서 편협한 시각은 버리고 보다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자그마한 미소도, 도움도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더불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고맙다며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를 위해 같이 준비했던 팀원들도 든든한 나의 인연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 정책 11 이 수 빈



#### 무지개 멘토링

한양 해외봉사는 유서 깊은 한양대학교의 자랑으로 중국 상해와 연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 가서 한양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봉사 종류에는 크게 교육 봉사와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가 있는데, 저는 교육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장기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봉사활동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봉사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 또는 나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봉사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며 나눔입니다. 한 가지 일반인들의 봉사에 대한 인식 중 안타까운 것은 봉사를 어려운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당장의 끼니 걱정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부터 먼저 숭선수범해서 남을 도우며 살고자 합니다.

## STEP 3

# 세상의 다이아몬드로 찬란히 빛나라 - 무한한 가능성으로 세상을 리드한다

### 3-1 실력으로 입증하다

※ 인문사회 최고 엘리트 양성소 - 행시합격 등

#### 고위공무원등 국가인재 DB 등록수

행정안전부 국가인재 DB자료(2011년도 기준)	
서울대학교	36,113명
고려대학교	12,762명
연세대학교	11,752명
한양대학교	7,264명
성균관대학교	5,938명
중앙대학교	3,870명
이화여자대학교	3,440명

※ 행시준비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2013년 행정고시 1차 합격생 104명 배출  
(정책학과가 단과대중 최다 합격생 배출)

### 3-2 법조인으로 우뚝서다 - 로스쿨 입학

※ 2013년 1기생 중 4명 중 2명이나 로스쿨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정책 10. 정 상 수 한양대학교 로스쿨 재학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을 단순히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실수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법을 적용하는 것인 만큼 사회에 대한 폭 넓은 고민과 다양한 영역에 걸친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합니다. 정책학과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깊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법학을 접할 수 있어 로스쿨에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글쓰기 수업과 논리학 수업은 모든 수업의 탄탄한 기초로 작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하에서 같은 목표를 갖는 친구들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보다 실력을 높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 3-3 세계에 도전한다 - 꿈을 마음껏 펼쳐라

※ 정책학과와 우수한 커리큘럼과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정책 09. 최 준 호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3학년

2012년 8월 : 제 1회 EBS 전국 대학생 독서 토론대회 동상  
 2012년 11월 : 제 7회 교보숙명 전국 대학생 독서 토론대회 동상  
 2012년 12월 : 제 1회 한양인 열린 토론대회 장려상  
 2013년 1월 : 제 1회 교육과학기술부 ACE 사업 참여후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 우승  
 2013년 5월 : 2013 제1회 한양인 독서 토론 대회 우승



정책학과 1학년 2학기 커리큘럼에 있는 <비판적 사고>수업을 들으며 토론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정책학과에는 미래에 고위공무원 및 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우들이 많기 때문에, 논리력 및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이 여러 개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논리학 수업이 많습니다. 논리학 수업에서 제 인생 처음으로 3vs3으로 팀을 나눠서 토론을 했는데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나의 논리와 상대방의 논리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각자의 논리와 화술로 나의 논리를 돋보이고, 상대방의 논리에 있는 결함을 찾는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업에서 토론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이 큰 여운으로 남아 군 제대 후에도 토론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토론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 10. 정유진. 정부 해외 인턴

- ALSA 한국대표단
- 한양대학교 입학처 행사 기획
- 한국정책방송 KTV, 삼성, 한국언론진흥재단 학생기자
- 정부 해외 인턴



정책학과에서는 다양한 학문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책학과에서 정치학, 법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운 이유는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어 제가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국가정상회의 요원으로 활동하는 데에 많은 지식적 밑거름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책학과는 학생들의 미래를 한 가지로 국한해서 수업과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학문을 찾고 또 이를 각자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포괄적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저는 정책학과에서 배운 정치학과 언론학을 바탕으로 오피니언리더, 국제저널리스트의 꿈을 키워나고 있습니다. 20대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배우며 성장해나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학과로, 저는 제가 재학 중인 정책학과가 제격이라고 자부합니다.



##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로 눈부시게 날아라

정책학과와 영롱한 다이아몬드들은 세상과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책학과와 찬란한 다이아몬드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앞장섭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처럼

글로벌 마인드와 미래 비전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다이아몬드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문과의 다이아몬드 학과 - 정책학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별로

더 큰 대한민국, 더 멋진 미래를 밝힙니다.